

9. 침례 받으심.(2011. 8. 28)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것과 그 의미를 복음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참 구주 예수님을 더 깊게 사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3:13~17]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14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6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세 때에 성전에 다녀오신 후에 가정에서 부모를 받들어 순종하며 18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나사렛 목공소에서 목수로서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그런 일로 예수님은 목수로 알려졌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막6:3) 예수님은 목수인 요셉을 도우며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가정을 지성으로 돌보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목공 기술은 대단해서 아주 인기가 있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 편의 시를 써 보았습니다.

나사렛 목공소

나사렛 목공소는
온종일 분주하네.
어린 손이 연장을 잡았어도
일마다 완전하게 끝을 맺네.

목수 아버지 요셉도
소년 예수의 일숨씨에
혀를 내 두르고
함께 하는 일꾼들은
경이로운 눈길로
예수의 숨씨를 주목하네.

그 앞을 지나던 길손들도
그 기민한 숨씨에
눈길이 쏠리고
이루어가는 작품에
절로 탄성이 쏟아지네.

그의 품성 완전하듯이
하는 일마다 경탄을 자아내고
만드는 물건마다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네.

키가 자라며 지혜도 자라고
아름다운 마음씨
완전한 도덕성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자라네.

나사렛 요셉의 목공소
예수로 인하여
폭주하는 일거리로
영일이 없네.

조금 있으면
목공소를 떠날 예수
그날이 오기 전
아직도 예수 있을 동안
최대의 효과를 성취해야 하네.
우리의 인생도 역시 그렇다네.

예수님의 성품이 완전하였듯이 하시는 일도 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가정을 떠나서 공중봉사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탄생하실 때에 대하여, 기름부음을 받을 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지요.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된 70 주일 중에 기름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날 그 때가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정든 나사렛 가정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때맞추어 침례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외침을 들으려고 요단강을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하였습니다. 곧 예수님을 소개하였지요. 그러나 요한도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요한이 한 말을 들어보면 분명하지요. 요한복음 1:32~34입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도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요단강으로 왔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도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침례 받으려는 것을 말렸겠지요. 요한은 죄 사함을 받는 회개를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마3:5-6)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1:4,5에서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즉 요한의 침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신 것입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마3:13,14)라고 하였지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마3:15)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쁨듯 하신 것을 친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0: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쁨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기쁨부음을 받는 사실을 다니엘이 70 주일에 대한 예언에 기록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30세쯤 되셨다고 누가는 기록하였습니다. 눅3:22,23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이때가 기원 27년경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지요. 서력기원은 예수 탄생한 때를 원년으로 했는데 30세에 침례를 받았는데 기원 30년이 아니고 어떻게 27년이 되느냐고 생각되지요. 그것은 서력기원을 계산한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로마의 한 수도 원장이 계산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 건국기원 754년에 예수께서 탄생 했다고 계산했는데, 그때가 서력기원 525년이었습니다. 이 계산은 프랑크 황제 샤를마뉴 대제 때부터 보편화되었습니다. 샤를마뉴는 서기 800년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엑시구스의 계산은 그 계산을 발표한지 300년쯤 지났을 때는 보편화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1214~1294년까지 생존한 로저 베이컨이 로마의 한 도서관에서 아기 예수를 죽이라고 명령한 헤롯 대왕이 로마 건국기원 750년에 죽었다는 역사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엑시구스의 계산대로 하면 예수께서 탄생하기도 전에 헤롯이 죽은 것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엑시구스의 계산을 서양 거의 모든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잡기가 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쯤 틀린다는 것을 알고 그냥 엑시구스의 연대 계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30세쯤에 침례를 받으셨으나 서기로는 27년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몰라도 불편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 침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이 나서 잠깐 그 경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사실은 제가 이 시간 방송에서 여러 번 강조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 단언합니다.(고전15:22)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은 사망의 존재입니다. 사망의 존재인 것이 바로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근본적인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것을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합니다.(엡2:3)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나지 않았 습니다. 그분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가 없으십니다. 사 망의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분은 탄생하여 사람으로 생활하면서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 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8:46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 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무도 예수님을 죄로 책잡을 수 없도록 그분은 전혀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 다. 뱀전 2:21,22은 이렇게 계시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 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 십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도 사망의 존재가 아니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고 아담 안 에서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닙니다. 또한 스스로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침례를 받았습니까?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강론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우리들의 본을 보인 것이라고 합 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라는 뜻입니다. 이 설명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대 답하신 내용은 아닙니다.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 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침례받아야 하는 이유를 친히 대답하셨지요. “예수께서 대 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 니라.”(마3:15)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침례요한은 곧 예수님이 침례 받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두 분 사 이에 적척 알아듣는 교감이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말을 하자 요한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침례를 베푸 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복음적으로 실로 아름답고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수님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학 자는 그의 주석에서 침례를 받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가 없어도 침례를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침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지낸바 되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을 표상하는 예식입니 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그와 같이 아담과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장사되어 3일 동안 땅 속에 계시다가 사흘 만 에 부활하시는 것을 표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곧 인류를 구 원하는 일을 완전히 표상하는 예식이 예수님의 침례입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께서 모든 의 를 이루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근본적인 죄인 사망을 완전히 처리하고 영원한 생명인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 4:25에서 이렇게 설명합 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 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이유입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 씀하셨습니다. 눅12:50에서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 하겠느냐”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표상이지만 진짜로 십자가와 부활의 침례가 기다리고 있다 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심으로 물로 침례를 받은 진짜 의미를 설명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침례요한에게 대답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 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

지라.”(마3:15)고 하셔서 당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침례는 요한이 베풀고 예수님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이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침례가 성립되었습니다. 요한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그 아버지 스가랴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동침하여 태어난 아담의 후손입니다. 요한이 비록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생명의 씨는 역시 아담의 씨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죽은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생명의 씨와 상관없이 그분 자신의 영생의 생명이 씨가 되어 남자를 경험한 일이 없는 처녀에게서 탄생했기 때문에 전혀 사망과 상관없는 생명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 탄생에 대하여 말씀 나눌 때 이미 자세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왜 침례요한 아담의 씨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아야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한이 두말 않고 그대로 수행한 것은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예수께서 아담의 후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일도 복음을 나타내는 구원의 사업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눅3:21)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머리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권능을 기름붓듯 하신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3:17) 침례를 받고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습니다.(눅1:35) 그런데 침례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선포입니다. 누구든지 침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는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그는 성령의 주장을 살아가는 사람이며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로마6:4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고방식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침례 받으심으로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주에 공개하셨습니다. 그분의 구원사업은 비밀 사업이 아닙니다. 사단이 지켜보는 중에 떳떳이 이루실 사업입니다. 그렇게 구원사업을 이루어나가실 때에 사단의 공격이 극심할 것입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실 것입니다.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경험에 이르도록 승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침례가 하나라고 말합니다.(엡4:5) 침례 형식도 하나이지요. 물속에 잠기게 하는 침례 형식입니다. 침례는 죽는 것을 표상하는데 가장 확실하게 죽었다는 판정은 호흡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표상하는 침례도 호흡이 끊어지는 일이 있도록 고한된 예식입니다. 물속에 잠기면 호흡하지 못

합니다. 그러므로 침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흔히 그림이나 영화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릇이나 손으로 물을 떠서 예수 역할 하는 사람의 머리에 붓는 형식을 취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형식입니다. 표상은 실재를 가장 잘 나타내어야 진짜 표상이 됩니다. 침례 역시 표상이지만 실상을 올바르게 나타내는 표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예수님의 침례는 그분의 구속 사업을 완벽하게 표상하는 예식이며 모든 의를 그렇게 이룬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는 예식이었습니다.

이 침례가 언제 시작되었는가고 학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요 1:33,34) 분명히 말했지요.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라고요. 그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지요.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마21:24~27]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나 사람에게로서나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27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음의 모든 것이 다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구원하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침례로 구속의 복음의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침례로 표상한 대로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의 곧 영생의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침례로 서약하게 하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경험을 하셨는지요?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침례의 진정한 뜻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함께 이런 경험으로 새 생명 가운데 생활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성령께서 전적으로 주장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이루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침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깊은 의미를 알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침례로 구원의 복음의 실상을 공개하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지낸바 되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침례로 거듭난 삶을 살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였습니다. 오늘도 그 서약대로 오직 성령의 주장으로 생활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